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9월 21일 (제 1324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과거는 과거다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있었다. 복음 브로커들이 죽은 대통령 아버지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일이다. 대통령 아버지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대통령과 연결하여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한다며 집회를 주관하는 왈테르 목사를 속인 것이다. 알고 보니 대통령 아버지는 이미 십년 전에 사망했단다. 그러니 메인스타디움 집회도 애당초 거짓이었단 것이다. 나는 일의 전말을 알고 나서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잊자.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것에 사로잡히면 이번 집회는 망치고 만다.”

과거는 과거다. 날아가는 새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을 향해 진군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9:62) 롯의 아내가 과거에 미련을 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은가(창19:26).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뗏목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뗏목을 바라보며 과거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했다(민11:5~6). 그렇게 뒤만 돌아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40년 광야 세월을 할 수밖에.

그러나 엘리사를 보라.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발을 갈던 소 한 겨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렸다(왕상19:21). 과거를 잘라내고 끊어버린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밀쳐내도 끝까지 따라붙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다시 계획하라. 그래서 나는 엘살바도르 집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악조건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을 토하시느군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자세와 각오로 나간 VISIONARIOS TV 방송설교에서 목사님이 속사포로 불을 뿜듯 설교하는 모습에 사회자 마우리시오(Mauricio Navas Guzmán) 방송사장이 한 말이다. 목사님으로서는 이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 자칫 우물쭈물 머뭇거리다가는 이 전쟁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기였기에 정말 사활을 걸고 방송설교에 임하셨다. 1시간 방송 중 중간에 광고를 위해 잠시 브레이크타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주목도 100%의 메시지였다. 간밤에 목사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 방송설교 하나를 위해 사활을 건 기도를 하

신들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안수하셨다. 엘살바도르(EI Salvador)에 대소동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네팔리(Nepalí Alvarenga) 목사가 시무하는 수도 산살바도르(San Salvador) 소재 Misión Cristiana 교회에서 목회자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에드가르도(Edgardo Cardoza) 비서실장도 약속대로 참석했다. 정치인들이 참석하겠다고 말하곤 약속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그의 진중한 모습은 남다르게 보였다.

이제 두 번의 야외집회만이 남았다. 다시 시작하는 엘살바도르 집회의 초점은 모두 이 이틀간의 야외집회에 맞추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세를 뒤집

넘게서는 넘치는 은혜로 보상해주셨다. 그런데 이번 엘살바도르 야외집회는 저간의 아픈 사정이 있었기에 더욱 절실했고, 또한 역전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첫날 집회를 앞두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야외집회를 준비한 마리오(Mario Granados JR) 목사는 집회를 앞두고 아버지 마리오 목사가 쓰러졌다. 그는 이 야외집회 장소에 만 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겠다고 씬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대기 장소에서 만난 마리오 목사는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였다. 목사님이 이 먼 나라에 오신 것은 오로지 자기 때문이라며 기뻐했다. 기도해주시며 ‘과로하면 안 된다. 큰 교회 짓다가 쓰러지면 그게 무슨 유익인가? 온 천하보



2025 엘살바도르 산타아나 집회 광경

셨다. 그 자세와 각오가 그대로 반영된 방송임이 역력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후에 영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언론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전면기사로 다루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산타아나(Santa Ana)의 베델(Bethel)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담임 아비엘(Abiel Amaya Castillo) 목사는 집회를 앞두고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기쁨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호텔 만찬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 목사님을 환영해주었다. 목사님은 마치 이날 집회가 마지막인 듯, 2시간을 넘게 설교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

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야외집회의 관건은 날씨다. 물론 집회 준비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비를 멈추고 성공적인 집회를 해온 경험이 있음에도, 집회 전에 비가 내리면 또 덜컥한다. 가나(Ghana) 집회 때 끝까지 비가 멈추지 않고 폭우로 이어진 적도 있고, 멕시코(Mexico) 팔렌케(Palenque) 집회 때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비를 멈추고 대역사를 이룬 적도 있었다. 모든 해외집회가 다 성황리에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하나

다 귀한 것이 내 육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집회가 시작되자 비가 멈췄다. 비를 멈추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오랜 역사적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여느 중남미 국가 사람들에 비해 반응이 조용했다. 목사님은 회중석으로 직접 내려가 안수하시며 혼신을 다하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졌다. 악조건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성령께서 역사해주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쏘아빵고 첫날 집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고 있다



산살바도르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TV 방송설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상3:3~15)



가장 지혜로운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 하여 '지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웠음은 물론이요, 돌덩이 굴리듯이 금을 사용하였으니 최고의 부귀를 누린 자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합당하셨습니다. 수(壽)도 구하지 않고, 부(富)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으로 지혜를 받아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에게 두 창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창기는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고, 같은 집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깔려 죽은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살며시 죽은 아이를 다른 어머니 품에 누이고 다른 아이를 자기 품에 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어머니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이가 바뀐 것을 안 창기가 ‘너 미쳤니? 그게 내 애야.’라고 해도 아이를 바꾼 여인은 아예 걱정하고 별인 일이라 뻔뻔스럽게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자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요즈음이야 DNA 검사 정도면 바로 상황 종료가 되겠지만, 당시야 과학적 장비가 없으니 지혜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해결책에 찬사를 보내주었고 있었습니다.

왕은 갑자기 곁에 있는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한 어머니가 기겁하여 왕에게 아뢰니다. “왕이여, 산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옵소서. 제발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른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나누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에 확증하여 말하기를 “산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에게 주라. 그가 그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두드러진 명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잠4:7) 하였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열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잠16:16) 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 40년 동안 ‘저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교단을 이끄는 것은 제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더욱이는 물질과 말조차 낯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기에 더욱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문제 제 있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을 나 지 금 까 지 예수중심교단을 이끌어왔고, 70개국을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는 악전고투(惡戰苦鬪),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의 도움으로 메인스타디움 집회가 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막상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복음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난감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침 인터넷을 통해 제 설교를 듣던 경찰청 목사(경목)를 통해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을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땅에 온 목적을 밝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은 응용하기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방송사 사장을 통해 TV 방송에 나가 무려 한 시간 동안 집회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무산될 뻔한 집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여러분,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우리 안에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

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

수 있 게 되 는 것입 니다. 그러므 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 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잠4:6~7)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부족하고 어렵겠습니까. 옛날에 한 임금에게 중전을 비롯하여 11명의 빈(嬪)이 있었습니다. 고령이 된 왕은 어느 한 날을 택하여 그 모든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너희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 주려 한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은 기쁨에 들떠 평소 품고 있던 소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중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는 사대문 안에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왕은 즉시 그것을 하사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연이어 빈들이 각각 소원을 아뢰니다. 왕은 약속대로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린 빈

만이 남았습니다.

왕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어린 빈은 치마 속에서 큰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깔아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전하만 이 보자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왕은 파안대소(破顔大笑)하며 어린 빈에게 말합니다. “너는 과연 대단한 것을 구하는구나. 참으로 지혜로운지교.” 왕은 중전을 폐하고 어린 빈을 중전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지혜란 이처럼 궁극적인 것을 얻는 첩경입니다. 그 안에 부귀와 영광만 있었습니까? 왕을 얻으면 사대문 안의 땅뿐이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첫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무엇이든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지혜도 구하면 주십니다.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사11:2). 그러므로 지혜란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잠2:7). 하나님은 진실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3:17~18)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직한 자에게 부여주십니다.

셋째,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지혜, 곧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지라 시기와 다툼이 일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약3:15~16).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3:1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법

워런 버핏은 1987년 주주서한에서, “시장에 휘둘러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정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좋은 사업 판단력을 겸비한 투자자가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광적인 시장에 이성을 빼앗기거나, 비관적인 시장에 감정이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변동성이 주가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에, 객관적인 마음 상태가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로서의 평생의 성과는 종종 발생하는 극단적인 시장 변동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성은 진정한 투자자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가격 변동성은 그에게 주가가 급락할 때는 현명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는 현명하게 매도할 기회를 준다. 그 외의 다른 시기에는 주식시장은 잊어버리고 배당수익과 보유 기업의 사업 실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버핏도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소개할 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문을 닫아주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란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가는 매일 무작위로 움직이며 가끔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만, 기업 가치는 매우 천천히 변합니다. 바로 여기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주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매도할지 말지는 투자자의 시간지평에 달려있지요. 시간지평이 길수록 감당하는 리스크는 적어집니다. 인내는 금융시장 주기들을 균등화해 주는 훌륭한 평형조정장치(equalizer)입니다. 시장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가지고 시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부의 창출 동인입니다.

피터 린치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데 정말 중요한 관건은 겁을 먹고 주식을 던지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지요. 마이너스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해는 투자 게임에서 늘 있는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한 해나 특정 시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지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자가 적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세상에 휩쓸려 넓은 길을 기웃거리지 말고, 건너가 머물지도 말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좇아 좁은 길을 가다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지라도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 신앙논객 ::

고층 건물은 기초가 다르다

25학년도 2학기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이하 신학교) 개강예배 때 원장이신 이시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간추려본다.

“대나무는 5년 정도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미미하지만, 일단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나면 서부터는 몇 주 만에 10미터, 20미터씩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아파트나 고층빌딩은 기초 공사를 절대 대중 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히며 목회자로서의 기초를 만드는 지금을 귀하게 여기고, 배울 수 있을 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며, 셋째는 백성들의 소송과 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의 종들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외쳐 회개케 하는 자의 역할까지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하나님의 대리인(代理人)이자 대언자(代言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 있는 성경에 통달해야 합니다. 리더(Leader)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아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영적 리더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듯,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끌면 그 영혼들을 망치게 됩니다. 판사가 육법전서를 알아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목회자들이 되어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이끄는 선한 목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계속 갈고 닦으면 마침내 바늘을 만들 수 있고, 낭중지추(囊中之錐), 날카롭게 갈린 송곳은 주머니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번 학기에 선지 생도들이 기초 실력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세계에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층 건물 같은 목회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신학원 학생처장 신혁주 전도사

우리 하나 됩시다

삼쌍둥이가 한 사람인가, 아니면 별개의 두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탈무드에는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말한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 이때 다른 머리가 소리를 지르면 한 사람일 것이고, 반응이 없다면 두 사람인 것이다.”

이 방법으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낸다. 유대인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면 그를 유대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군대 얘기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 사람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다. 그런데 군대 얘기에 시큰둥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 다녀온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일까?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아프고,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맘껏 기뻐하고 축하한다면 분명 우리는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또 주님의 아픔이 가슴 절절히 전해오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자는 주님의 형제요, 주님과 하나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의 보혈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5).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초석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너 자신을 알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이쪽저쪽을 다 아우르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듯이 편협하고 선부른 판단을 하지 말란 말이다. 그만큼 자신의 무지(無知)한 자체를 못 깨닫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그는 많은 대화 끝에 진리에 다다르지 않겠느냐는 해답을 내놓는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대화 속엔 회의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린 이 표현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야 한다. 바로 ‘코람데오’(하나님 앞에 서라)이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라는 말이다. 부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신을 벗기셨다. 이것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철저한 ‘자기부인’의 요구이셨다. 맑은 거울 앞에 서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자기의 상태가 명확해지고 마땅히 할 일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라는데 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나만 제외한다. 내 판단, 기준, 식견, 경험이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증상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두 부류의 극단을 통해 나타난다(행17:18). 한 극단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경거망동하게 살려는 사람들! 또 한 극단은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 이 모습은 옛날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성찰보다는 늘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조롱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신 예수님은 결국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 사도 바울도 죽는 날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깨달았다. 의기양양했던 ‘율법에 흠이 없던 자’에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결국 ‘죄인 중의 죄수’의 순서로 겸손히 변화되었다. 내 신앙 연륜, 나이, 직분, 경험이 나의 신앙의 질을 보장하는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홀로 나를 세워 민낯을 발견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고 하신다. 남을 향하던 손가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알자!

송직화 목사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올해 초 드디어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다 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괜히 망설여졌다. 그러다 청장년부 예배 때 ‘말세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자’,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자’라는 이시대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팀원들과 바로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다.

뉴스를 보면 중동의 전쟁과 같은 세계정세, 여러 범죄 사건과 안타까운 사고들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얼마 전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아이가 요즘 인생이 힘들다며 신세를 한탄하는 말

을 했다. 예전 같으면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 때는 말이야...” 하며 배부른 소리라고 나무랐을 텐데, 그날은 애써서 아이를 먼저 공감해주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이에게 교회를 비방하는 장난을 쳐서 마음이 상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울먹이며 이야기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 큐티 좀 하고 올게요.”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밝은 얼굴로 나온 아이는, “엄마, 저 큐티 다 했는데요. 앞으로도 말씀 계속 읽고 전도도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에 남편에게도 전했고, 남편도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재택 근무하는 날, 어느 때처럼 남편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 그러다 남편은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큐티책이 눈에 띄어

읽게 되었다. The Purpose라는 서울 중 고등부 교육부서에서 발행하는 큐티책이었다. 남편은 읽어보더니 그 큐티책이 매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사용하던 큐티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인기 있는 책이었는데, 남편은 그 책도 본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퀄리티가 좋다고 말하며, 앞으로 The Purpose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라고 나에게 권하였다.

나도, 아이도,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일 때 평안과 안정감을 느낀다. 우리 가정을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효경 집사

Good News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객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나 장례예배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숙연한 분위기가 가운데 순전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잔칫집에서야 연락을 즐기며 인생에 관하여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모

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을 깨닫고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마음 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 점 후회가 없도록 매사에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이 가는 길은 짧은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위대한 자는 생각이 위대하고 악한 자는 생각이 악하다
존귀한 자는 계획이 존귀하다 -봉우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8)
But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Isaiah 32:8)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뇌졸중 예방, 운동과 약재차의 생활 지혜

중풍이라고도 하는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찾아와 일상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예방 또한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예방의 세 가지 운동 원칙은 꾸준히, 균형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입니다.

뇌졸중 예방 운동은 한두 번의 열정으로 끝나서는 효과가 없으며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간단한 조깅, 수영, 등산 등을 주 3~5회 이어가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맑게 하여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몰아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 매일의 반복이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걷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근력 운동은 대사 기능을 개선하며, 요가와 같은 균형 운동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친 운동이 아니라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뇌졸중 위험 요인은 비로소 다각도로 줄어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이들이 무리해서 달리기를 한다면 오히려 혈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체력에 맞춘 가벼운 활동,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이며,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안전 위에서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운동이 몸을 열어 준다면, 약재차는 혈관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마차는 어지럼증과 혈압 안정에, 국화차는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산사차는 혈중 지질을 낮추고, 황기차는 기력을 북돋우며, 결명자차는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차 한 잔의 습관이 혈관 건강을 보완하는 또 다른 협력자가 됩니다.

뇌졸중 예방은 멀리 있지 않으며 비용이 그리 들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걷기와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따뜻한 약재차 한 잔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꾸준함, 균형, 안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전통의 지혜를 더한다면 뇌혈관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과 함께 육체의 건강도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고백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고, 나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 하시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죄악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죄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회개하기 어렵고, 반복되면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필자 또한 직장과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나는 살면서 매일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많지 않아. 나는 이 정도면 신실한 크리스천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길 권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한일서 1장 8~10절).

매일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혹시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길 바란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송명국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